

光州日報



항사 뒤덮인 광주

전국이 최악의 모래바람에 휩싸인 1일 시민들이 마스크와 안경, 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채 광주시 서구 풍암저수지 주변을 걷고 있다. 항사는 2일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외출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7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रो에 선 민주당

재보선 승리 자만 말라

노선투쟁 접고 수권능력 보여라

과감한 공천 개혁 등 당체질 바뀌야 모든 기득권 버리고 민심소통 필요

민주당이 4·27 재·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내년 총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그동안 막막했던 대선 구도에서 활로를 찾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지적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민심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피부에 와닿는 민생 정책과 비전을 제시,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확고히 하는 한편 과감한 공천개혁안과 감동적인 야권연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재보궐선거 승리에 대해 자체 동력보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의 실정에 따른 외부적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고물가, 실업난, 전세난, 구제역, 공약 뒤집기 등 각종 약재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잇달아 터지면서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확산, 민주당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여권 내부의 분열과 자충수도 이번 재보선 결과를 좌우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분당 을에서는 후보 선정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장기화된 갈등이, 강원지사 보궐선거에서는 불법 선거 파동 등이 민주당의 막판 역전극을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재보궐선거 승리는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솔직히 민주당이 새로운 대안으로서 민심을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민심과의 소통을 강화, 피부에 와닿는 각종 민생 정책을 제시하면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어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소모적인 노선 투쟁을 떠나

사회 전반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수용할 수 있는 당의 체질개선과 함께 외연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내부적 동력 확보 없이 목전의 승리에만 안주하다는 오히려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또다시 무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감한 기득권 포기 등을 담은 개혁안 마련과 함께 국민적 감동을 견인할 수 있는 야권연대 및 통합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당내에 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선 방법 등 공천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야권연대 방안은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순천과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는 ‘희생과 배려’가 배제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며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민심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과감한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 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임기말 개각 호남전멸 우려

이번주 5~7개 부처 대상...거론인사 대부분 영남·충권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 내에 5~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거론되는 후보자 가운데 호남 출신은 찾아보기 어려워 또다시 ‘그들만의 개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개각은 4·27 재보선 패배에 따라 국정쇄신의 뜻을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측근들을 다시 기용하는 ‘회전문’ 개각이나 특정 지역 및 인맥을 중용하는 ‘친정체제’ 구축은 오히려 민심의 반발을 부르는 등 레임덕 현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주 내에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5개 부처 이상의 중폭 규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개각은 3개 부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4·27 재보선 패배로 규모가 확대됐다는 관측이다.

재보선 결과로 수도권과 중산층의

민심 이반까지 확인되면서 과감한 개각을 통해 국정쇄신의 뜻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각 대상 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등이다.

여기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추가로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장 등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집권 하반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직면한 4·27 재보선 패배는 개각의 의미와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이번 주 내에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5개 부처 이상의 장관이 교체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각과 관련, 현재 거론되는 장관 후보자들은 대부분 영남 출신이거나 핵심 측근과 참모들이 대부분이다.

광주·전남 출신은 유일하게 보성

이 고향인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인재풀의 한계도 있지만 정권 하반기 권력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여권 내부의 계산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개각에서 이반의 환경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다면 최악의 경우, 전남 출신인 김황식 총리를 제외하고 내각에서 광주·전남 인맥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국정쇄신 및 국민통합의 의지가 퇴색되면서 오히려 민심의 반발을 불러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각은 보다 지역적 안배에 신경을 쓰는 한편,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를 과감하게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LH 진주로...끓어오르는 전북

이달중 입지 발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하는 쪽으로 사실상 잠정결론이 난 것으로 1일 알려지면서 전북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LH공사 본사는 진주로 일괄이전하는 것으로 이미 논의 방향이 기울어진 상태”라면서 “이달 중에는 LH공사 본사 이전 입지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국토해양부나 지역발전위원회가 공식적인 태도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고위 관계자가 LH 일괄이전설을 흘린 것은 ‘여권 고위 관계자’라는 배일을 쓰고 특정지역(진주)을 유리하게 하려는 언론 플레이이며 비선사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종업 전주·완주혁신도시 추진단장은 “국회 입법보고서에 LH공사를 분리발주 했을 때 부재비율이 떨어져

업무효율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 일괄이전 논리는 말이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와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2일 오후 도청에서 ‘LH 본사 분산배치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강력하게 항의하기로 했다.

전북도 박종문 정부부지사는 “새만금 개발청은 국책사업의 추진체계 일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하는 LH와는 별개”라고 못박고 “정부나 경남이 (LH이전 문제와) 새만금 개발청 신설을 연계시키려는 것은 건 강부회(牽強附會)”라고 반박했다.

LH공사 본사 이전은 수천여명의 직원과 지난해 기준 262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수가 달린 문제여서 전주와 진주 모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펴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과학벨트 후보 10곳

영남권이 절반 이상

전국 10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후보지에 영남권이 절반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되는 본원이 영남권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후보지 10곳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밝혔지만 애초 과학벨트 입지였던 세종시가 제외되고 광주·전남·전북에서도 광주만이 유일하게 후보지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학벨트의 핵심이 영남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도 지방안정성과 연구기관 및 연구자 집적도 등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는 장점을 부각하면서 지역 및 전국 과학자들을 상대로 유치 운동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내심 본원이 영남권으로 가는 수순이 아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놀며 느끼며 꿈꾸며

우리를 에버랜드로 데려가 주세요. 책으로는 느낄 수 없는, 바람에 실려오는 장미향기를 느끼게 해주세요. 감각과 감수성을 자극해주세요. 우리 안에 더 큰 꿈을 깨워주세요. **놀며 느끼며 꿈꾸며 에버랜드**



EVERLAND
RESORT

에버랜드 장미축제 (5.13~6.12)

동화처럼 아름다운 <장미원>
동화 속 왕자님과 공주님을 만날 수 있는 로맨틱하고 환상적인 장미정원

공연을 즐기는 <이슬빌리지>
신규 공연 <이슬 미니퍼펙트>과 <캐릭터 디아노>으로 더욱 새로워진 동화 마을

봄로로 3D 어드벤처 (6/4 오픈 예정)
3D로 더욱 생생하고 재미있게 즐기는 봄로로와 친구들의 신나는 모험이야기

35

모집관광안내

아시아여행사 062-225-3456

• 코스 염주체육관 정문(06:30 출발) → 터미널 앞사내버스 승강장(06:40) → 문화예술화관 후문(06:50) / 대인 30,000원 / 소인 25,000원
※ 사정에 따라 일정, 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에버랜드 호남영업소 063-285-7380